

# 美術 작품을 통하여 본 齒科醫學

대한치과의사협회보협이사  
 금성치과원장  
**金圭燠**



(金圭燠博士)

「美術을 통하여 본 齒科醫學」은 長長32회를 마지막으로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執筆의 勞苦를 아끼지 않으시고 資料蒐集에 心血을 傾注해 주신데 對하여 깊은 減謝를 드립니다.  
 金圭燠 先生님은 1972년 서울大齒大에서 醫學博士學位를 取得하시고 서울中區會理事, 副會長을 歷任하신바 있으며 現在 大韓齒科醫師協會 醫療保險理事로 活躍하고 있습니다.

## 作者 年代 米上

Verse of the Depiction(일련의 묘사)

지난호(4月號)와 같은 作者로 추정되는 그림으로 제목 그대로 몇장의 같은 계열에 속하는 그림이다.

등장인물은 세사람으로 대장간에서 방금만든 발치감자를 부인(?)에게 자랑하는 대신 이번 그림에서는 같은 그림 구도로 대장간의 기구로 만든 발치 감자를 치과의사인듯한 원로에게 자랑겸 자문을 받는 장면을 보여 주고 있다. 세사람의 인물 설정 또한 흥미롭다고 하겠다. 고통과 이해는 17c~18c 작품의 주제로서 잔학한 일면을 처리하는 수단으로 인용됐다.



研究와 精進을 指向하는

# 寶 城 合 金 寶城齒科技工所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465  
 代表 朴 允 三

☎ (53) 3411 (55) 3024